

시집 가는 날

오영진(吳泳鎭) 원작 박만규(朴滿圭) 극본

나오는 사람들

맹진사: 태량
맹노인: 그의 아버지
맹효원: 그의 숙부
한씨: 그의 아내
갑분이: 그의 딸
이쁜이: 갑분이의 몸종
미언: 김 판서 댁 자제
치윤: 미언의 숙부
박참봉, 삼돌이, 유모
친척들 1~12

제 2장 맹 진사 댁 안사랑

〈앞부분 줄거리〉

동네 처녀들은 명문가인 김 판서 댁 자제와 결혼하는 갑분이를 부러워한다. 갑분이의 몸종 이쁜이는 갑분이에게, 시집 갈 때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하지만 거절당한다. 한편, 신랑이 될 미언과 그의 숙부 치윤은 나그네로 가정에 맹 진사네 마을로 들어온다. 미언은 우물가에서 나그네에게 물을 떠 주며 베풀음을 하나 띄워 주는 이쁜이의 고운 마음씨와 자태에 매혹된다.

으리으리한 기와집 우측에 내실로 통하는 일각문이 있고
둘레엔 매화가 만발했다.

좌측으로는 사랑과 행랑으로 통한다.

기와지붕 아래 오른쪽엔 맹 진사의 사실(사실), 넓은 대청을 사이에 두고 왼쪽엔 절반쯤 보이는 방은 맹 진사의 부친 맹 노인의 침실이다.

대청엔 값진 가구들이 놓여 있고, 대청 아래로 돌계단을 내려서면 넓은 뜰이다.

후면 담장 너머로 울창한 대숲. 한쪽으로 또다른 기와지붕의 한 귀퉁이가 드러나 있다.

간주 밋고 무대 밝아지면 맹 진사 태량이 예물 목록 두루마리를 펼럭이며 득의의 절정에 이르렀다.

부인 한씨와 갑분이, 그리고 유모가 옆에서 점점 더 신바람이 나는 맹 진사의 낭송을 경청하고 있다.

맹 진사: 가구 집기는 그러하고,
비단 피륙은 그러하고,
금은 보화는 그러하고,
대감의 사돈댁 사돈의 팔촌까지
초대하라는 술안주로 치더라도,
노루고기, 호랑이고기,
고래고기, 붕고기에
대감의 사돈댁 내외 몸보신하라는 보약재만 하더라도
인삼 따위는 제쳐놓고
녹용에 곰의 응답에
용궁 이끼, 하늘 지렁이 갈비 -----.

한씨: 아이구, 영감 어지럽수! 그만 해 두시우!

맹 진사: 원, 사람두 담이 약하긴 ----.

유모: 우리 아가씨 시집 갈 땐 이것이 꼭 후행가게 해 주세요. 마님!

맹진사: 암. 젓어멈이 안 가면 누가 가겠나?

한씨: 아무튼 혼사가 되구 보면 그야 영감의 공이지 뭐니까!

애야, 어디 노리개 좀 차 봐라! 팔찌두 껴 보구!

갑분이, 온갖 치장을 다 하고 마루 한가운데 선다.

노래 6 네 덕에 재 보자. (맹진사, 한씨)

맹 진사: 이리루 좀 돌아서 보렴.
저리루 좀 돌아서 보렴.
네 덕에 살판났구나.
영감이 대감 사돈
대감이 영감 사돈
맹씨 가문에 경사났구나.

한씨: 어디 한 번 웃어 보렴.

어디 한 번 걸어 보렴.

피는 꽃, 뜨는 달이
네 앞에서 무색하다.
딸자식 잘 뒤 부원군 한다고
맹씨 가문에 경사났구나.
맹진사, 한씨: 큰기침을 해 가면서, 덩실덩실 춤추면서
어디 한번 재 보자.
으쓱으쓱 재 보자꾸나.

이 때, 좌측에서 이뿐이 쪼르르 나타나 갑분을 보고 황홀한 듯 다가가 갑분의 옷을 아래위로 만지며 감탄한다.

이뿐이: 정말 눈부셔요. 아가씨!
한씨: 이 계집애야! 넌 그런 것 만지면 못써.
이뿐이: 예?
맹진사: 이젠 아가씨랑 어울려 놀 생각두 마라!
이뿐이: 예!
맹진사: 네 친구가 아니니까.

이 때 박참봉, 좌측에서 나타나 알린다.

박참봉: (읍하고) 사랑방 큰마님과 운산골 작은마님 들시오!
맹진사: 뭐야?
한씨: 작은아버님은 혼삿말이 나기아 무섭게 문턱이 닳으라구 드나드시잖우?
맹진사: 흥, 샘이 나시겠지! 사촌이 눈을 사면 배가 아프다구 그랬어!
어서들 안으로 들어들 가라구!

갑분, 유모, 한씨 총총히 우측으로 퇴장한다.

맹진사: 뭣 하구 있는 게야, 넌?
이뿐이: (깜짝 놀라) 예!

이뿐이, 급히 우측 안방으로 퇴장.
이윽고 나팔 소리에 맞춰 맹효원의 부축을 받고 나타나는 맹노인.

항상 의식이 혼탁하고 줄기가 일쭉라 산송장과 같지만, 살아 있는 한 이 맹씨 가문에 있어서는 절대적 권위로 군림하는 맹노인이다.

긴 수염에 서리가 맺도는 맹효원은 그 풍채부터가 강직한 노인, 말하자면 정의과에 속한다.

뒤따르는 열두 명의 갓을 쓴 선비들은 맹 진사의 아저씨들이다.

맹 진사가 부친 맹 노인을 부축하여 그의 삼촌인 효원과 함께 대청으로 오른다. 맹 노인을 좌정케 한 후, 맹 진사, 큰절을 한다.

이윽고 맹 노인을 중심으로 열두 아저씨들의 좌정이 끝나면 맹 진사, 아저씨들에게 통틀어 한 번 큰절을 하고 나서 마루 중앙에 효원과 대좌한다.

맹 노인, 무대에서 진행되는 일에는 아랑곳없이 이내 즐기 시작한다.

맹효원: 그래, 모처럼 애씨 찾아간 보람이 있었다지?

맹 진사: 네, 작은아버지! 곧 택일을 해서 사주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맹효원: 뭐, 사주? 어느 새 사주라니? 그래 당자가 한눈에 흠뻑 맘에 들었다 그 말이나?

맹 진사: 당자요? 당자라굽쇼?

맹효원: 아니, 네가 정신이 있어 묻는 거냐? 신랑 될 미언이 말이지, 누군 누구야?

맹 진사: (가볍게) 난 또! 뒤덥 자제인덱쇼?

만나 보나마나죠. 어련하겠습니까? 원, 작은아버지두!

맹효원: 무슨 소리냐? 경주 돌이면 다 옥돌이라더냐? 혼담을 건네러 가서 신랑 선두 아니 보구 와?

맹 진사: 아, 뺨을 맞아도 금가락지 긴 손으로 맞으랬다구, 저쪽은 김 판서 대감 덕이 아닙니까?

맹효원: 뭣이 어째? 아니, 그럼 너는 권문세도만 믿구 무조건 딸자식을 내주겠다는 거냐? 신랑 성격이 포악하든 괴팍스럽든 말이다.

맹 진사: (무릎걸음으로 다가앉으며) 작은아버지! 사내란 따뜻미지근한 것보다 괴팍스런 게 낫지요!

맹효원: 허, 이런? (친척들을 돌아보며) 자네들 소견을 어떤가?

친척들, 대답 대신 좌우로 갓의 물결.

맹효원: 형님! (맹 노인을 깨운다.) 형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맹 노인: (잠에서 깨며) 오오냐?

맹효원: 제 소견이 틀렸습니까, 형님?

맹 노인: (못 알아듣고) 난 요새 이놈의 컷구멍네 모기 떼가 아우성을 치는 통에 ----.

여기서부터 빠른 연주에 주고받는 대사.

맹효원: 갑분이 말씀이어요.

맹 노인: 갑분이?

맹 진사: 시집 같 나이여요.

맹 노인: 시집?

맹 진사: 열여덟 살이여요.

맹 노인: 누가?

맹효원: 형님의 손녀딸요.

맹 노인: 형님의 손녀딸?

맹 진사: 아버님의 아들의 무남독녀 외동딸요.

맹 노인: 호오? 외동딸. 외동딸이 누군고?

맹 진사: 손녀딸 갑분이 말씀인데요. 어떨까요, 김 판서 댁 자제하구?

맹 노인: 누구하구?

맹 진사: (벌떡 일어나며 소리지른다.) 호수 건너 마을 김 판서 댁 자제 미언이하구요!

맹 노인: 호오? 김 판서 댁? 좋지. 암 좋구말구!

맹 진사: 아버님두 이 혼사가 맘에 드신다 그 말씀이시죠?

맹 노인: 맘에 들다마다 다시 있는 자리냐? 허지만 애들아, 나이가 좀 어떨꼬? 김 판서하고?

맹 진사: (기진맥진하여) 김, 판,서, 아, 들, 미, 언이하구요!

맹 노인: 호, 김 판서한테 그런 장성한 아들이 있었단고? (그만 노곤히 잠이 들어 버린다.)

맹 진사: (그만 주저앉으며) 아이구, 하느님 맙소사! (최후의 희망을 걸고) 작은아버지! 여하간 이 혼사를 놓칠 순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행해야 합니다! 이걸 보세요, 작은아버지. (예물 목록을 펼치며) 가구 집기, 비단 피륙, 금은보화에 하다못해 보약에 이르기까지 일생을 두고 벌어들인 벌 -----.

맹효원: 이게 다 뭐냐?

맹 진사: 저쪽에서 바리바리 실어 보낸다는 예물입니다.

맹효원: 예물? 예물이 아니라 이건 일종의 선채야! 오랑캐들이 매매 결혼에나 있을 법한 흉흉한 물건들이다! 안 그런가, 동생들?

열두 개의 갓, 일제히 수궁.

맹 진사: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와서 예물을 무른다면 권문가의 예의범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힘들여 이룩해 놓은 혼사에 굶어 부스럼이 아납니까? 안 그래요, 아저씨들?

열두 개의 갓, 일제히 수궁.

무곡 7 혼례를 물러라.

(맹 진사, 맹효원, 그리고 각기 지지하는 친척들)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맹효원, 자리를 차고 일어나 마당에 내려선다. 그를 지지하는 친척 1, 2, 3, 4, 5, 6 도 신발을 신고 마당에 내려선다.

맹효원: 맹씨 가문 망치지 마라.

선채 따위가 무엇이나?

지지측: 맹씨 가문의 수치다.

예물 따위가 무엇이나?

맹 진사 역시 흥분해서 뜰로 내려와 맹효원과 대치한다.

그 뒤를 따라 쭈르르 친척 가, 나, 다, 라, 마, 바 지지하며 뜰로 내려선다.

맹 진사: 뭣이 그리 대단하오?

초시 초시, 기껏 초시.

지지측: 자네 말 일리 있네.

따지고 보면 대대로 초시.

맹효원: 세도와 재물 탐내지 마라.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 백년 세도(百年 勢道) 없더라.

지지측: 권세와 재물은 때묻은 것.

양반 체통 지키며 살자.

맹 진사: 기죽어 살지 말고 으쓱대며 살자는데

시비는 웬 시비요?

지지측: 지체 높게 살자는데

말릴 필요 뭐 있는가?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양측 지지파가 합세하여 움직인다.

맹효원: (버럭) 그러니 세도를 얻자고 하나뿐인 무남독녀 외동딸을 선도 안 본 녀석에게 팔아넘기겠다 그말이나?

열두 명의 친척들, 크게 찬의를 표하며 맹효원의 뒤로 몰려 합세하여 끄덕끄덕----

맹 진사: 재물과 세도가 나뉘는 건 또 뭘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저씨들?

열두명의 친척들, 크게 수궁하고, 맹 진사, 뒤로 이동하여 끄덕끄덕 ----
음악 고조되는데

맹효원: 좌우지간 마땅치 않다!

열두 명의 친척, 맹효원 뒤로 이동하려다가 멈칫 선다.
맹 진사의 섭섭함이 폭발했기 때문이다.

맹 진사: 너무하십니다. 작은아버지!

열두 명의 친척, 이번에는 맹 진사 뒤로 이동하려다가 멈칫 선다. 이내 맹효원의
결정적인 노여움이 폭발했기 때문이다.

맹효원: 혼례를 물러라!

열두 명의 친척, 그만 맹 진사와 맹효원의 중간에 정지한 채 두 사람의 대화에
따라 일제히 상반신만을 좌우로 흔들고 있다.

맹 진사: 무를 수 없습니다.!

맹효원: 무르라니까!

맹 진사: 무를 수 없다니까요!

맹효원: 물러!

맹 진사: 못 합니다!

맹효원: 무르라구!

맹 진사: 못 합니다. 절대!

맹효원: 오냐! 좋을 대로 해라! 어물전 망신은 꿀뚜기가 시킨다구 세상 웃길 짓만 해
봐라. 용서치 않을 테다! (분연히 좌측으로 퇴장)

친척들, 왼쪽 끝에 선 자의 지시로 맹효원의 뒤를 따라 퇴장하려다가 멈칫 선다.
등 뒤에서 마침내 맹 진사의 분노가 터졌기 때문이다.

맹 진사: 아무렴요. 내 딸 가지구 내 맘대루 허는데 왜 그러십니까! 헛! (오른쪽 안방으로
분연히 퇴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다시 우에서 좌로 ---

이렇게 우왕좌왕하던 열두 명의 친척들이 마침내 두 줄로 등을 진채 행동 반경을 좁히면서 동작을 멈춘다.

제 3장 맹 진사 댁 안사랑

전장과 같은 무대다.

맹 진사, 대청 한가운데에 쭈그리고 앉아 열심히 족보를 읽고 있다. 마치 풍월을 읊조리듯, 경을 읽듯 ---

박 참봉이 그 옆에서 벼루에 먹을 갈며 장단을 맞추고 있다.

맹 진사: 에이, 공상스럽게 무슨 족보가 이런고? 고조부, 증조부, 조부, 아버지가 그저 한결같이 초시, 초시, 초시, 이래 가지고도 숙부님들은 나무라기만 하시니 ----. 헛, 안 그런가? 박 참봉!

박 참봉: 누가 아니랍니까, 마님!

맹 진사: 위로 올라가면서 더더욱 해괴망칙하군. 그래, 아전 부스러기 하나 못 얻어 하구 사농공상 중에서두 제일 꼴찌만 골라서 했던 말야!

박 참봉: 아, 누가 아니랍니까? 영감께서 일찌감치 진사 한 자리 사 두시기를 정말 잘 하셨습죠. 후손이 대대로 덕을 보거든입죠.

맹 진사: (당황해서) 에끼, 이 사람! 누가 듣겠네!

박 참봉: 예그 참, 내 주둥아리가?

맹 진사: (소리를 낮춰) 자, 참봉. 이거 좀 뜯어고쳐! 어서! 쥐도 새도 모르게 깜쪽같이 뜯어고치잔 말야.

박 참봉: 아니, 영감마님 족보를 말씀입니까?

맹 진사: 족보란 가꿈 그런 게야! 그런데 제일 높은 감투가 뭔지 알겠나?

박 참봉: 그야 상감마마 담엔 영의정입죠.

맹 진사: 틀림없겠지?

박 참봉: 틀림없습니다.

맹 진사: 그럼 6 대조는 영의정이다.

박 참봉: (역시 소리를 낮춰) 그렇게 단번에 뛰어오를 수야 있습니까? 차근차근 질서정연하게 단계적으로 승차하셔야죠!

맹 진사: 그렇던가? 그럼 ---- 포도 대장 쪽에서부터 시작을 해 볼까?

박 참봉: 지당하옵니다. (족보에 적는다.)

맹 진사: 7 대조는? 평안 감사썸이 어떨까?

박 참봉: 제일 실속 있는 감투입죠! (신이 나서 적어 넣는다.)

맹 진사: 8 대조는?

박 참봉: (거침없이) 성균관 대제학!

제가 한자리 했으면 하는 감투입죠! (적는다.)

맹 진사: (약간 불안하여) 영의정은 아직 멀었는가?

박 참봉: (묵살하고) 9 대조는 좌의정-----.

맹 진사: 10 대조는?

박 참봉: (혼자말로) 이쯤 되면 무방하겠지! 에이, 모르겠다. 영의정 족다!

(족보에 적어 넣고 자신만만해서 보여 준다.) 어떻습니까?

맹 진사: 호랑이의 날개로군! 헛, 헛-----.

(한번 훑어보고) 자, 그럼 어서 마저 적어 놓게! 진사 태량의 사위로 판서

김치정의 장남 미언, 미언의 이름을 내 아랫대에 적어 넣는단 말야!

박 참봉: 그렇게 되면 데릴사위 같은데요. 영감마님.

맹 진사: 족보란 그런 거 아닌가? 원, 고지식하기는!

박 참봉: 아, 네! 대서특기합쇼. (적어 놓고 혼자말로) 금상 첨화로군!

맹 진사: 어디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읽어 볼까?

이 때, 밖에서 인기척. 박 참봉, 급히 족보를 감추려 한다.

박 참봉: 누가 오지 않았습니까?

맹 진사: 날이 저물었는데 누가 올라구/

박 참봉: 매사는 불여튼튼, 가만 계십시오!

그 때, 좌측에서 삼돌이의 소리.

삼돌이: 우리 아가씨 갑분 아가씨, 팔자 한번 늘어졌네!

맹 진사와 박 참봉 긴장이 풀린다.

삼돌이 나타난다.

맹 진사: 헛, 망할 녀석!

난, 또-----.

삼돌이: 마, 마님! 지나가던 과객이 -----.

맹 진사: 과객?

삼돌이: 하인까지 대동한 선빈데요. 하, 하룻밤만 머물고 갈 수 없느냐구요?

맹 진사: 뭐가 어째? 우리 집이 새둥지라더냐? 냉큼 내쫓아 버리렴! 그 주제에 하인까지 대동을 해?

오늘은 꼭두새벽부터 재수가 없더라니!

삼돌이, 머리를 긁으며 퇴장.

맹 진사: 박 참봉! 어디 다시 한 번 볼까?

박 참봉, 개정한 족보를 공손히 바친다.

맹 진사: (창으로) 10 대조가 영의정에 9 대조가 성균관 대제학이라.

7 대조에 가서 평안 감사.

6 대조에 포도 대장.

김판서의 미언이가

맹 진사 댁 사위이니

금상첨화에 호랑이의 날개로다!

박 참봉: (메기듯) 좋다! (그러다가) 영감마님, 맹씨 가문의 족보가 이제야 오색찬란한 광채를 띠었습니다그러!

무대 어두워지는데 한씨 우측에서 나타난다.

한씨: 영감, 딸자식 시집 보내려다가 남은 머리가 다 세졌구려! 저녁 진짓상 내오게 할까요?

맹 진사: 벌써 그렇게 됐는가? 좌우지간 좀 기다리라구!

이 때, 삼돌이 다시 나타난다.

삼돌이: 나리마님, 쫓았어요!

맹 진사: 오냐, 잘 했다. 지금 세상에 선비가 다 뭐 말라비틀어진 게냐?

삼돌이: 어두어지는데 호수 건널 일이 난처하다구 걱정을 하던걸요!

맹 진사: 뭐? 호수를 건너?

삼돌이: 예.

맹 진사: 아빨사! 큰 낭패 봤구나!

한씨: 아, 호수 건너면 김 판서 댁네 마을 사람이 아니우?

맹 진사: 예끼, 이 맹퐁이 같은 녀석!

삼돌이: 예예?

박 참봉: 아, 어서 냉큼 쫓아가 모셔 오지 못하니?

삼돌이: 예.

한씨: 인석아, 뭘 꾸물대구 있는 게야?

삼돌이: 예! 이거 당최 어는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헛! (퇴장)

한씨: 내 서둘러 주안상부터 마련할 테니, 영감은 어서 손님 맞을 채비를 차리시구려!
(우측으로 창황히 퇴장)

여기서부터 빠른 장단이 시작된다.

맹 진사: 뭘 하는가? 참봉!

박 참봉: 예?

맹 진사: 아, 빨랑 가져오지 못할까?

박 참봉: 가져오라니 뭐 말씀입죠?

맹 진사: 뭐라니? 내 도포, 도포!

박 참봉: 예! 도포 말씀입죠?

맹 진사: 그러구 관.

박 참봉: 관입죠?

맹 진사: 도포하구 관. 관하구 도포!

둘이 한동안 “도포하구 관.”을 연발하며 대청마루 위를 꼬리를 잡듯 뱅뱅 돌다가, 맹 진사는 오른쪽 방으로, 박 참봉은 왼쪽 방으로 급히 뛰어들어간다.

음악 고조됨. 이윽고 각기 도포 한 벌씩과 관 하나씩을 찾아 들고 총알처럼 뛰어나오는 맹 진사와 박 참봉.

서로 정신 없이 도포와 관을 입히고 씩위 주강 옆치락뒤치락하는데 ---- 삼돌이의 안내로 좌측에서 나타나는 치윤과 미언.

맹 진사, 급히 뜰로 내려가 과객을 영접한다.

맹 진사: 아랫것들이 몰라뵈서 대접이 아니었습니다. (비뿔어진 관을 매만지며) 헤, 헤! 제가 바로 맹태량, 이 집의 주인이올시다.

맹 진사, 박 참봉에게 눈짓----

참봉, 깜짝 놀라 도포와 관을 벗고 족보를 감춰 가지고 쪼르르 좌측으로 퇴장.

맹 진사, 과객과 그 하인을 안내하여 대청에 오른다.

치윤: 창졸간에 폐가 많소이다.

맹 진사: 아, 원, 천만에! 이렇게 대할 손님, 저렇게 대할 손님이 있죠!

삼돌, 멀거니 구경하다가 대청마루 한쪽으로 올라가 오른쪽 방에서 불을 붙여 가지고 나와 등잔에 당겨 놓고 내려온다.

맹 진사: 듣자온대 호수 건너 마을에 사신다니 혹시 김 판서 대감을 아시는지요?

치윤: 아, 네! (창으로)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산천초목이 알아모시는

명재상 김 판서라.

나이 어려 재동으로

열다섯에 등과하고,

해마다 승진하여

삼십 전에 명판서로

성상을 받드신 분

팔도의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터에 누구라서 모르겠습니까?

맹 진사: (매우 흡족해서) 헛헤! 그러실 테지! (자랑하듯) 바로 그 택하고 나하구 사돈을
맺었쥬. 헤, 험!

치윤: (놀라는 체) 아, 그러세요? 그거 참, 경사스런 일입니다. 그러!

몰라뵈었습니다.

맹 진사: (삼돌이에게) 인석아, 넌 게서 뭘 하는 게냐? 냉큼 손님 발 씻을 물 떠다
대령하지 않구?

삼돌: 예!

맹 진사: 그리구 주안상일랑 객실루 내오란다구 일러라.

삼돌이: 예! (우측으로 퇴장)

맹 진사: 그럼 우선 발이나 좀 씻으시구 객실루 나오십시오.

우리 약주나 하면서 이야길 나눠 봅시다.

치윤: 융숭한 대접, 감사합니다.

맹 진사, 좌측으로 퇴장.

이뿐이가 우측에서 주안상을 들고 나오다가 미연과 마주친다.

둘이 다 놀란다.

이뿐이 고개를 떨군 채 좌측으로 퇴장.

이윽고 삼돌이가 대야를 들고 나와 마루 아래 대령한다.

삼돌이: 손님, 발 씻을 물 떠 왔어요.

치윤: 오냐!

미연, 어느 사이엔가 좌측으로 사라지고, 무대엔 치윤과 삼돌이만 남는다.

치윤: 허, 시원하구나! (둘러보다가) 그런데 너희 주인 영감은 왜 하필 김 판서 댁과 사돈을 맺었는고?

삼돌이: 하필이라뇨? 그 댁 도련님이 문장은 소동파에, 필적은 왕희지에다가, 재주가 비상하구, 게다가 풍채가 따를 사람 없는데 -----.

치윤: 그렇지만 풍채는 아니야!

삼돌이: 예? 풍채가 뭐 어째요?

치윤: 다른 말은 비슷하다 치더라도 풍채만은 목불인견(目不忍見)이란 말이다.

삼돌이: (놀라) 예?

치윤: 그러니 반사십이 넘도록 미장가로 세상 재미 모르고 살았지! 너희 주인 영감은 서도 보지 못했다더냐?

삼돌이: 선요? (고개를 설래설래 가로젓는다.)

치윤: (수건으로 발의 물기를 씻고 버선에 대님을 매며) 허, 이런 변이 있담?

치윤, 삼돌이 귀를 끌어달겨 무어라 귀엣말. 그러자 삼돌이 기절 초풍하여 저만큼 나가떨어진다.

삼돌이: 아이구머니!

치윤: (입에 손을 대고) 쉬!

치윤, 옆에 있던 목침을 들고 내려가 삼돌이 등에 집어넣는다.

삼돌이, 영락없는 곱사등이 되어 치윤 쪽을 돌아보며 절름발이 시늬를 한다.

치윤, 빙글빙글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다가 좌측으로 퇴장.

삼돌이: (크게) 아이고! 우리 아씨 작살났구나! (목침을 떨어뜨리고 창황히 우측으로 뛰어들어간다.)

무대, 더욱 어두워지며 쟁반 같은 보름달이 후면 울창한 대밭 위로 떠오른다.

잠시 후 한씨, 우측에서 창황히 뛰어나온다.

뒤에 삼돌이 ---

한씨: 뭐가 어쩐다고? 세상에 기절초풍할 노릇이 따로 있지!

어서 객사에 가 영감마님 좀 잠깐 나오시라구 해라. 손님 눈치 못 채게시리.

알겠느냐?

삼돌이: 예! (급히 퇴장)

한씨: 에그머니! 세상에 이런 변고가 있는가?

이 때 이뿐이, 좌측에서 나타난다.

이뿐이: (한씨가 서성대는 것을 보고) 안방마님, 무슨 일이라두 생기셨나요?

한씨: 무슨 일은 무슨 일이 생겨? 너는 냉큼 들어가 있거나!

이뿐이: 예. (우측으로 들어간다.)

이윽고 삼돌이와 함께 맹 진사가 허둥지둥 좌측에서 나타난다.

한씨: 영감, 세상에 이런 변이 있소?

맹 진사: (영문을 몰라) 변이라니?

삼돌이, 무엄하게도 상전인 맹 진사의 귀를 끌어당겨 무어라 속삭이고 나서 목침을 집어 자기 등에 집어넣는다. 영락없는 곱사등이. 게다가 절름발이 흉내를 곁들인다.

맹 진사: (기절할 것처럼 놀란다.) 뭐, 뭐야?

이 때 박 참봉, 관을 쓰고 좌측에서 나오다가 삼돌이 꼴을 보고 깔깔거리고 웃는다.

맹 진사: (노발대발) 뭐가 우스워?

박 참봉: 예.

맹 진사: 누가 참봉더러 의관을 허락했는가?

박 참봉: 예, 황송합니다. (급히 의관을 벗는다.)

맹 진사: 삼돌아, 너, 어서 객실로 올라가 손님 좀 모셔 오너라! 내가 직접 캐 봐야겠다.

삼돌이: 알았어요. (뛰어나가려는데)

맹 진사: (입에 손가락을 대고) 쉬!

삼돌이: 쉬!

맹 진사: 비밀이다. 비밀이야!

삼돌이: (겹을 집어먹고) 예!

박 참봉: (멋도 모르고) 비밀?

삼돌이, 급히 좌측으로 달려나간다.

어디선가 별안간 다듬잇방망이 소리 ---- 그 방망이 | 소리에 맞추듯 맹 진사 서성대는데, 박 참봉, 영문도 모르고 졸졸 뒤를 쫓는다.

한씨도 방망이 소리를 쫓듯 분주하게 반대 방향으로 서성댄다.

이윽고 딱 멧는 방망이 소리 ---
세 사람의 동작도 일시에 멧는다.

맹 진사: (한씨에게) 좌우지간 임자는 들어가 있구려.

입 꼭 다물고 말야!

한씨: 무르겠소! 내야 영감밖애 또 누굴 믿겠소? (무슨 말을 더 하려다 말고) 원, 세상에
이런 변이? ----- (우측으로 들어간다.)

맹 진사: 참봉!

박 참봉: 예.

맹 진사: (불러 놓고도 딴 생각에 잠겨) 이거 아닌데, 아니라구!

박 참봉: (졸졸 따라다니며) 예?

맹 진사: 무슨 도리가 없을까?

박 참봉: 글썽올시다.

맹 진사: 무슨 묘책이 없느냐구?

박 참봉: 글썽올시다.

맹 진사: (더 빠른 속도로 쏘다니며) 무슨 방도가 없느냐 말야?

박 참봉: 글썽올시다!

맹 진사, 마침내 걸음을 멈추고, 박 참봉, 딱 마주 선다.

박 참봉 흠칫한다.

음악 일단 멧고 ---

맹 진사: 자네두 별수없군!

박 참봉: 예? 예, 죄, 죄송합니다. (허리를 굽힌다.)

맹 진사: (갑자기 큰 소리로) 옳지!

맹 진사, 급히 대청으로 가서 좌측 맹 노인의 방으로 들어가 맹 노인을 부축하고
대청으로 나온다.

물론, 맹 노인은 비몽사몽간이다.

맹 진사: 아버님.

맹 노인: 오냐.

맹 진사: (크게) 월 가문에 뜻밖에 중대사가 생겼습니다. 아버님!

맹 노인, 듣지 못한다. 맹 진사, 주위를 둘러보다가 맹 노인의 귀에 뭐라고 속삭인다.

맹 노인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을 뿐 반응이 없다.

맹 노인: 아이구, 귀가 가렵구나. 훗훗-----.

 좀 더 크게!

맹 진사: (크게) 김, 판, 서 (다시 주위를 살피고) 아이구, 아버지, 큰 소리는 안 돼요!

맹 진사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뜰 아래로 내려온다.

여기서부터 우스꽝스러운 맹 진사의 무언극(舞言劇)이 독무가 되어 음악을 탄다.

맹 진사, 우선 두 팔을 들어 동그라미를 그린다.